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167-214
<https://doi.org/10.29212/mh.2022..124.1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광양 마로산성을 통해 본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

최권호 |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학예부 특별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9세기대 마로산성 자료 검토
 3. 마로산성을 통해 본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
 4. 맺음말

초 록 마로산성은 백제시대 석축산성으로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전모가 밝혀졌다. 발굴조사 결과 9세기대 유구와 유물이 집중 확인되었는데, 특히 광양의 백제때 지명인 ‘마로(馬老)’가 시문된 ‘마로관(馬老官)’ 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그 이유는 ‘마로관’명 기와의 제작 시기가 9세기대로 판별되어 지명의 사용 시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9세기대 건물지, 집수(集水)시설 등에서 독특한 문양의 막새기와, 중국제 동경·자

기류, 청동장식구, ‘왕가조경(王家造鏡)’명 동경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유물의 조합은 지금까지 출토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당시 마로산성 운영세력의 독자성이 잘 드러난다.

9세기대는 중앙귀족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약화된 지방지배를 틈타 지방 호족세력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마로관’명 기와와 같은 ‘古지명’이 시문된 명문기와들이 고구려·백제 고토의 거점성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점은 그 제작 주체가 지방호족세력일 가능성을 높혀준다.

결론적으로 9세기대 마로산성을 점유한 세력은 독자적인 지방호족세력이었다. ‘마로관’명 기와는 이들이 거점성을 운영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명분 확보와 영역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그들의 국계의식(國系意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주제어 : 광양(光陽), 마로산성, ‘마로관’명 기와, 거점성(據點城), 국계의식

(원고투고일 : 2022. 6. 27,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머리말

광양 마로산성(사적 492호)은 마로산(광양읍 용강리 소재) 정상부(해발 208.9m)에 위치한 6세기대 백제에 의해 축성된 거점성(둘레 550m)으로서 백제의 경남 서부권역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었고, 통일신라시대 이후 9세기대에 들어서며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10세기 전엽까지 가장 활발히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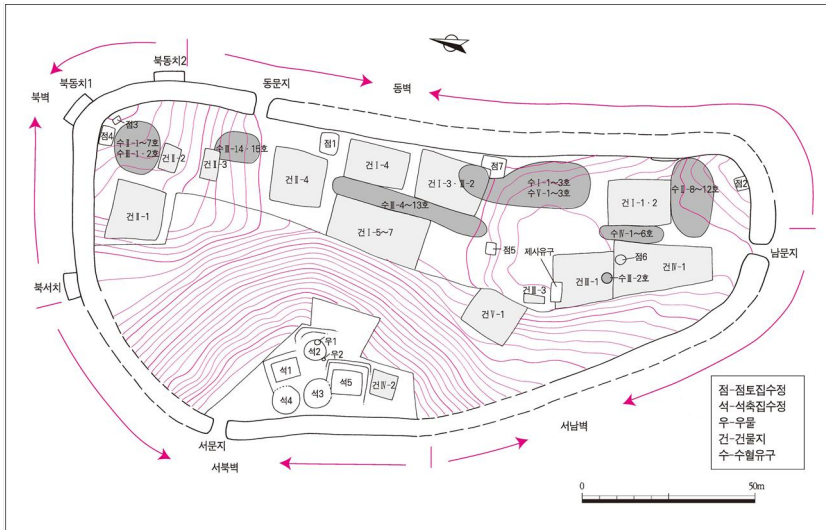
마로산성은 총 다섯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문지 3개소, 수구 3개소, 치 3개소, 건물지 17동, 집수시설 14개소, 수혈유구 39개소, 구상유구 1개소 등의 유구<그림 1>이 확인되었고 여기에서 토기류, 기와류, 금속류, 자기류 등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마로관(馬老官)’명 기와, 독특한 문양의 막새, 중국제 동경 및 자기류, 청동장식구 등의 상징적인 유물들이다. 특히 ‘마로관’명 기와는 광양의 백제시대 지명인 ‘마로’와 관련이 있어 문헌사료에 등장하는 지명을 고고학적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마로’라는 지명은 경덕왕대(757년)에 이르러 ‘희양(暉陽)’으로 개칭되는데, ‘마로관’명이 시문된 기와의 제작 시기는 9세기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로산성에서는 백제시대 기와도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백제시대 기와에서는 ‘마로관’명이 시문된 것이 단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필자는 ‘마로관’명 기와가 지명의 사용 시기를 훌쩍 뛰어넘어 제작된 이유가 마로산성이 9세기대에 개편되어 다시금 활발히 사용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마로산성에서 확인된 9세기대 유구와 유물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로관’명 기와처럼 ‘古지명+官’명이 시문된 기와들을 분석하여 그 제작 시기,

출토 범위 등을 파악한 후 ‘마로관’명 기와와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9세기대 마로산성에서 등장하는 ‘마로관’명 기와의 성격과 광양지역의 거점성인 마로산성의 운영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광양 마로산성 유구배치도



2. 9세기대 마로산성 자료 검토

가. 유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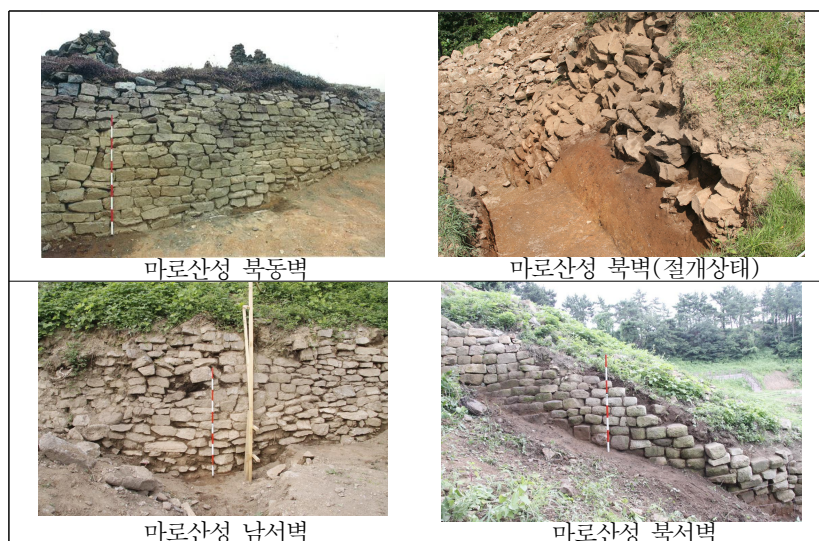
1) 성벽<그림 2>

성벽은 협축식으로 축조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마로산성 초축 성벽은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제토한 후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부정형 할석으로 외벽을 쌓으면서 내부를 뒤채움 하였다. 그리고 일정 높이 만큼 쌓은 후에 내벽을 쌓아 협축식 성벽을 완성하였다.

성벽에서 주목되는 점은 서문지 북쪽 개구부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약 30m 구간인데, 이 구간은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하였다. 남쪽 개구부는 장방형 내지 부정형 할석을 이용하여 기존 성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북쪽 개구부는 바닥면을 생토면까지 굴착하여 석재를 놓았는데, 일부 지대석으로 볼 수 있는 석재가 확인되고 있으나 정연하지 않다. 이 구간은 사용된 석재와 축조방법에서 다른 구간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대에 개보수를 진행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석재와 축조기법은 산성 내부의 석축 집수시설과 석벽 건물지, 그리고 성벽에 덧붙여 쌓은 치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림 2> 마로산성 성벽 현황



2) 건물지

건물지들은 모두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와가(瓦家)로 추정된다. 9세기대 건물지는 총 15동이며, 산성의 평탄지 및 경사면에 분포하고 있어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9세기대 대표적인 건물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9세기대 건물지 현황

유구명	규모(m)	칸수(주칸거리 cm)	출토유물	비고
I-2건	7.0×14.9	정면 7칸(200) 측면 3칸(230)	토기, 평기와, ‘馬老官’銘 기와, 막새, 납석제 개, 해무리굽 완, 철제초두, 과대(금동제대단금구, 청동제 판금구, 철제과판), 청동동곳, 동경, 호등, 자물쇠	초석 적심
II-1건	11.0×11.2	정면 5칸(170~220) 측면 4칸(240~280)	건물지: 토기·평기와, 명문와, 막새, 납석제 개, 철제차판, 과대(철제과판), 청동장식품, 중국 자기 수혈: 토기, 과대(은제교구, 철제과판), 철제호등, 철제재갈, 철제술, 철부, 은제장식, 청동향로, 철제초두, 중국 자기	초석, 수혈 18
II-2건	7.7×5.0	정면 1칸 측면 1칸	토기·평기와, 명문와, 해무리굽백자, 철부, 과대(철제과판)	초석, 주공, 암거(배수로)
II-3건	9.3×5.4	정면 3칸(350) 측면 2칸(245)	평기와, 명문와, 막새, 탄화미(다량)	기둥구멍 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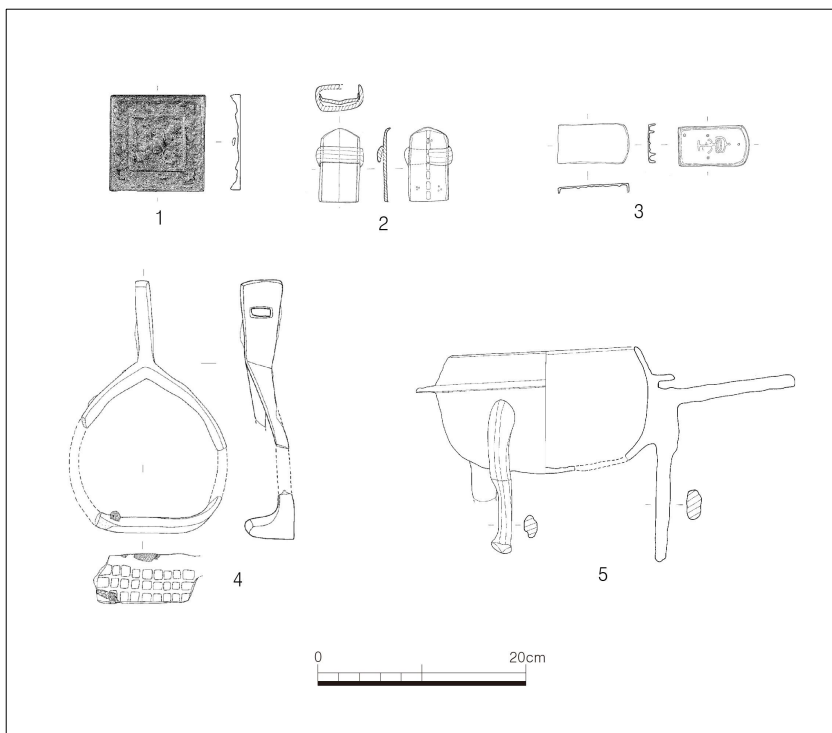
I-2건물지는 규모가 7.0×14.9m이며 내부에서 ‘마로관’명 기와, 해무리굽 청자, 철제초두, 과대(금동제대단금구, 청동제판금구), ‘해수포도방경(海獸葡萄方鏡)’¹⁾, 호등, 자물쇠 등이 출토되고 있어 산성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특히 수막새와 ‘마로관’명을 비롯한 명문기와가 다른 건물지에 비해 많이 출토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²⁾ II-1건물지는 규모가

1) 해수포도방경은 백제 시기 건물지인 I-1건물지 초석 상층부에서 출토되었는데, I-2건물지와 중복을 이루고 있어 층위상 I-2건물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마로산성 3차 발굴조사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건물지 내에서 출토된 명문와(銘文

11.0×11.2m이며 산성내부에서 조망권이 가장 좋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은제요대, 호등, 해무리굽 백자, 청동향로, 철제초두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징적인 유물들이 건물지 내부 수혈에서 출토되고 있어 장대 및 제의공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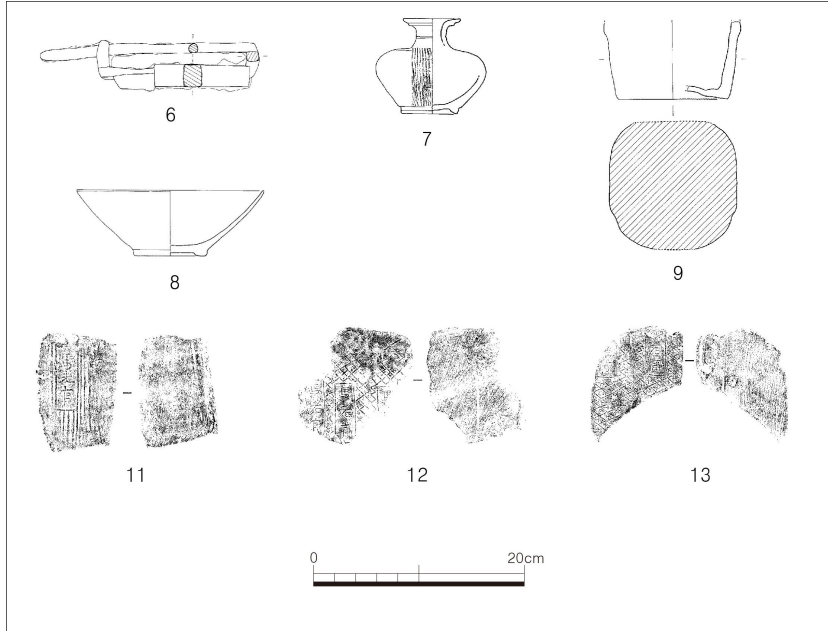
Ⅱ-2, Ⅱ-3건물지는 북쪽 정상부에서 내려오는 경사면을 ‘L’자 형태로 굴착한 반지하식 건물지로 각각 1동씩 조사되었다. Ⅱ-2건물지는 규모 7.7×5.0m이고, 내부에서 초석 1매와 주공 2개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할석을 깔았고, 길이 7.8m의

<그림 3> 마로산성 I-2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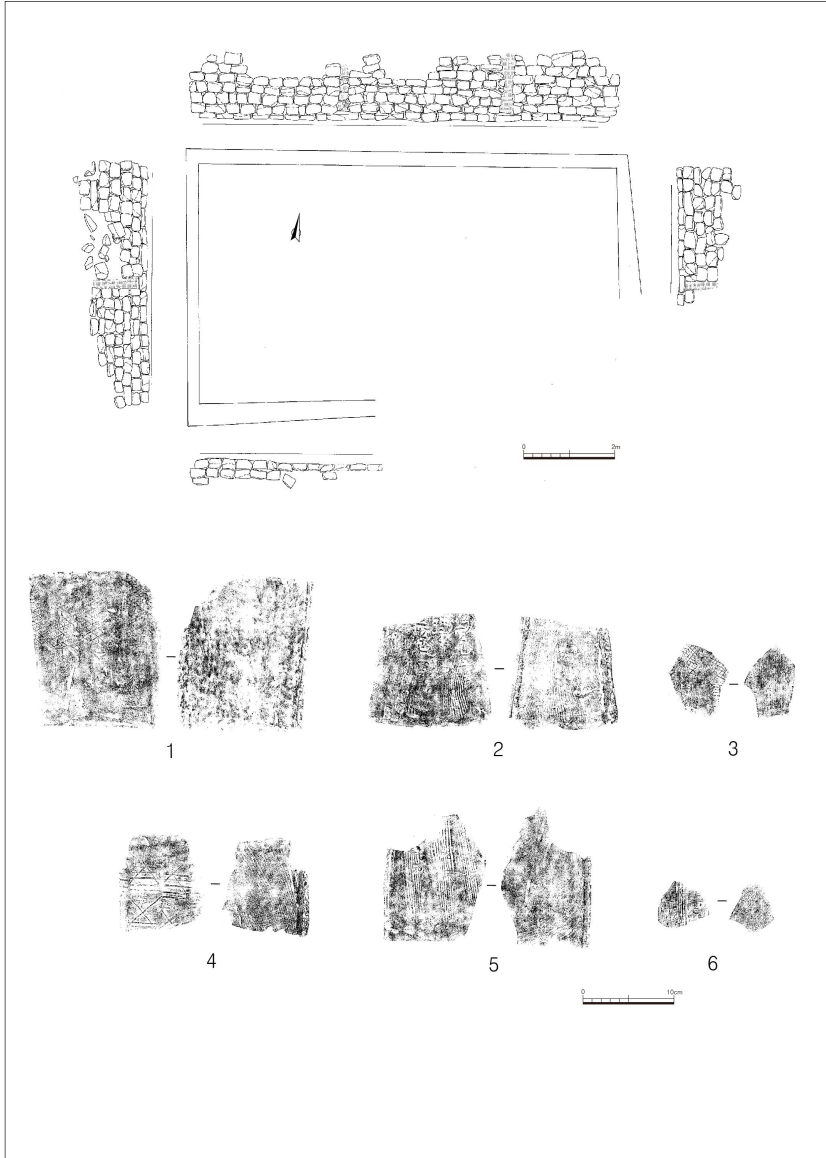
瓦)는 총 529점인데, 이 중에서 359점이 I-2건물지에 출토되어 6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최인선 외, 『광양 마로산성』 I,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

<그림 3(계속)> 마로산성 I-2건물지 출토유물



뚜껑돌이 잘 남아 있는 암거시설이 확인되었다. II-3건물지는 규모가 9.3×5.4m이고, 축조 방법은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안쪽으로 면을 고르게 맞추며 쌓았다. 남아 있는 각 벽면에서 기둥구멍이 1~2개소 확인되었다<그림 4>.

<그림 4> 마로산성 II-3건물지 및 출토유물



이 건물지들은 벽체를 석재로 조성하여 석벽건물로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 배수시설과 다량의 탄화미가 출토되고 있어 군창지 같은 특수 용도의 시설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석벽 건물은 양주 대모산성, 연기 운주산성, 아산 학성산성, 홍성 석성산성,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전주 동고산성, 광주 무진고성 등의 백제고지(百濟故地)에서만 발견되고 있다.³⁾

3) 석축 집수시설

석축 집수시설은 성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서쪽 계곡부에 7기가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다. 9세기대 석축 집수시설은 총 4기이며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9세기대 집수시설 현황

유구명	규모(단위 : cm)			평면형태	단면형태	축조재료	주요유물
	길이	너비 (직경)	깊이				
석축 1호	760	540	300	장방형	경사 (들어쌓기)	석재(사각추) 바닥 점토, 암반	토기, 평기와, 명문와, 막새, 지석, 청동집계, 철축, 원판형토제품,
석축 5호	766	580	360	장방형	경사 (들어쌓기)	석재(사각추) 바닥 점토, 암반	토기, 평기와, 막새, 원판형토제품
1호 우물		(140)	320	원형	수직	석재(할석+ 다듬은석재) 바닥 점토, 암반	토기, 평기와, 명문와, 막새, 청동완, 청동손가락
2호 우물		(60)	118	원형	수직	석재(할석) 바닥 확인불가	평기와, 명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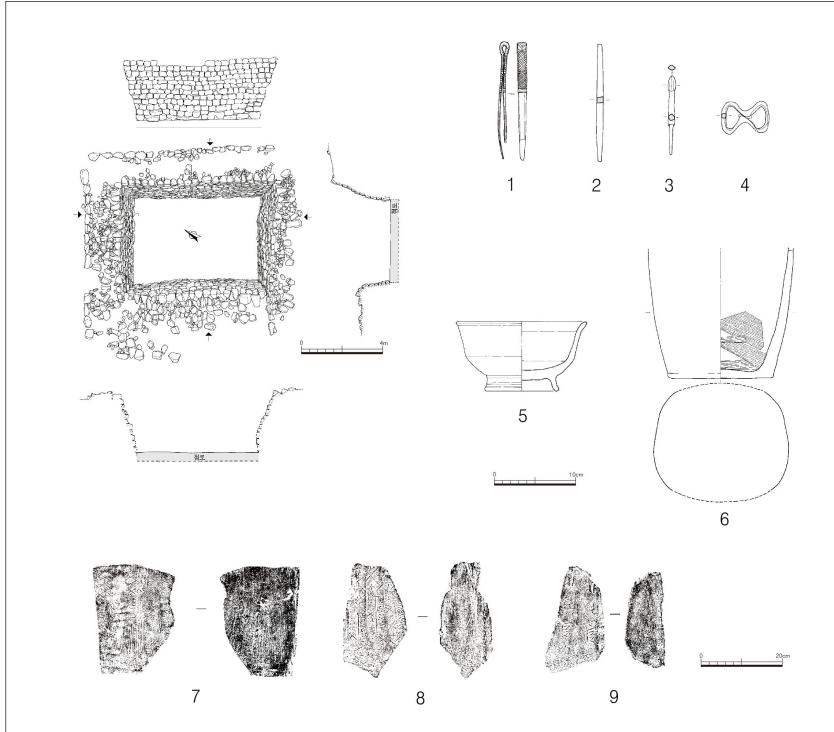
3)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석벽건물(石壁建物)의 성격에 대한 시고」, 『백제문화』 42, 2010,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석축 1·5호는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9세기대 축조된 건물지 축조에 사용되었던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경사식의 들여쌓기 방식으로品茶 형태를 유지하며 정연하게 쌓았다<그림 5>. 특히 석축 1호·5호는 이전시기에 조성된 석축 3·4호를 일부 파괴하고 축조되고 있어 산성내 석축 집수시설의 축조방법, 사용 석재 등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석축 1·5호 외곽에 석축의 방향과 대응되는 석열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전단계 집수시설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설로 경사면에서 밀려드는 토사에 의한 매몰을 방지하고 배수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형태의 집수시설은 8세기 말에 등장하여 9세기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동 고소성, 문경 고모산성, 창녕 화왕산성, 정읍 고부 舊읍성, 익산 미륵산성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⁴⁾

4) 최권호, 앞의 논문, 2010, 56쪽.

<그림 5> 마로산성 석축 1호 집수시설 및 출토유물



4) 치<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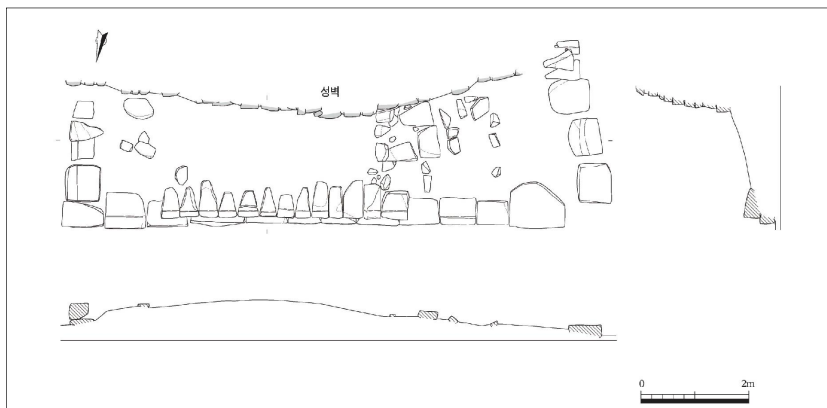
치는 북벽의 모서리와 동문지 주변에서 총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현황은 <표 3>과 같다. 규모는 7.9~9.8m, 너비 2~3.6m, 잔존 높이가 1m 정도이다. 축조방법은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들여쌓기 하였는데, 최하단에 대형의 장방형 지대석을 놓고 2단부터는 II-3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잘 다듬은 형태의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치는 성벽이 축성된 이후 덧대어 축조하였다.

<표 3> 9세기대 치 현황

유구명	평면형태	규모(m)	석재/축조기법
북서치	장방형	길이 7.9, 너비 2.8~3.2	석재 : 다듬은 석재 기법 : 최하단 장방형 지대석, 수평 미자형 들여쌓기
북동치 1	장방형	길이 9.8, 너비 2.0~2.6	석재 : 다듬은 석재 기법 : 최하단 장방형 지대석, 수평 미자형 들여쌓기
북동치 2	장방형	길이 9.4 너비 3.4~3.6	석재 : 다듬은 석재 기법 : 최하단 장방형 지대석, 수평 미자형 들여쌓기

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하단에 대형의 장방형 지대석을 놓고 2단 부터 잘 다듬은 석재로 들여쌓기 한 것이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장산도 대성산성, 무안 봉대산성, 전주 동고산성, 정읍 고사부리성 등에서 확인되는 특징으로 마로산성에서는 치에서만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확인되는 것으로 치의 축조시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림 6> 마로산성 북동치 1



나. 유물 검토

1) 토기류<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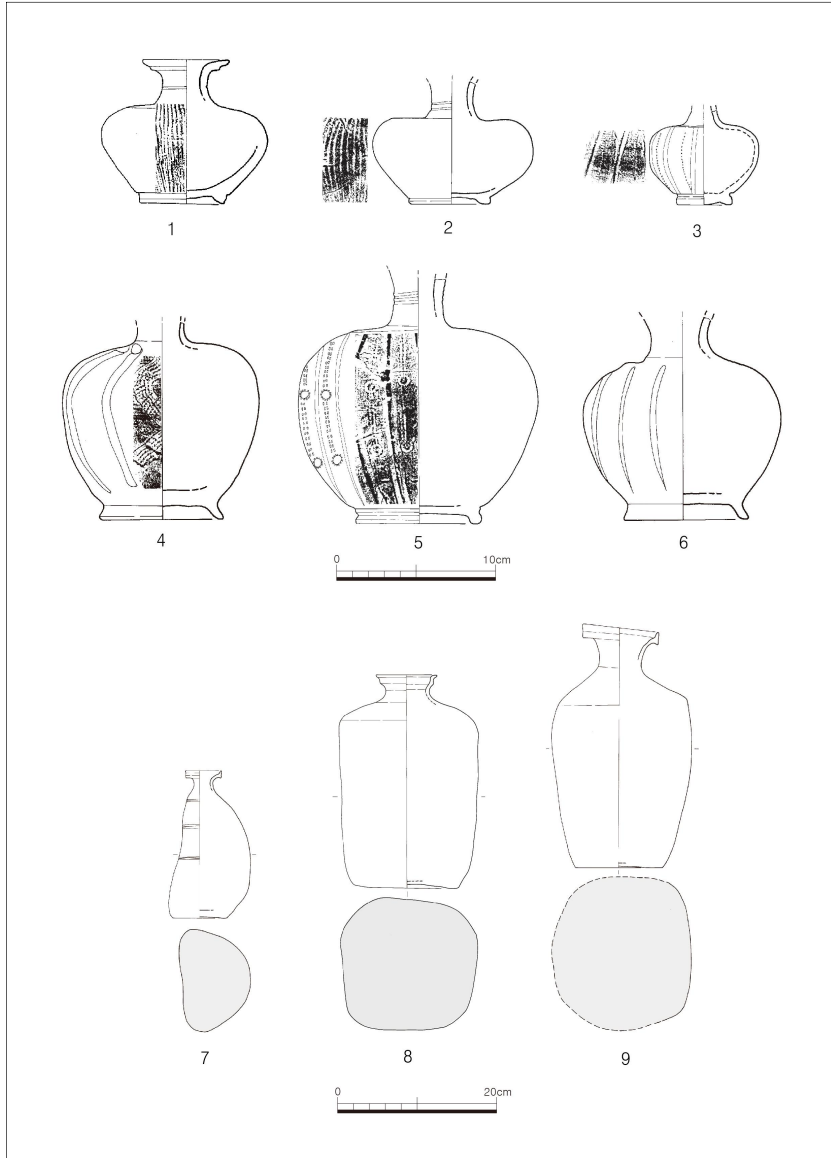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9세기대 토기는 개, 완, 병, 대호 등이 확인된다. 개는 드림부가 완전히 퇴화되어 ‘ㄱ’자형에 가깝고, 구경은 15cm 내외로 비교적 큰 편이며, 꼭지는 모두 환상형이다. 완은 S자형의 동체에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굽은 길고八字형으로 외반하고 있다. 인화문은 구연부와 동하위에 침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한강유역이나 중서부 지방의 생활유적과 고분에서 출토되는 대부분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체로 외면에 문양이 없거나 일부는 밀집문과 기하학적인 문양이 확인되고 있어 중심연대는 9세기대로 보고 있다.⁵⁾

병은 줄무늬병과 편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줄무늬병은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줄무늬병은 구연이 단이지는 반구형이고, 견부에 1~3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바닥에는 낮은 굽이 부착되어 있다. 덧띠무늬병은 동체부가 구형에 가깝고, 동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있다. 동체 외면에 띠를 따로 만들어 부착하고 있으며, 띠와 띠사이에 점열문, 다변화문 등이 시문되어 있다. 줄무늬병과 덧띠무늬병은 익산 미륵사지 동원 동승방지(東院 東僧房址) 기단토와 접한 층에서 “대중십이년미륵사(大中十二年彌勒寺)”명(858年)의 대호(大壺)편이 공반 출토되어 9세기대를 중심으로 편년되고 있다.⁶⁾

5) 강진주,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2006,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자린, 「統一新羅 臺附盟의 型式分類와 變遷-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2008,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최맹식,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小考」, 『文化財』24,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91, 87쪽.

<그림 7> 마로산성 출토 9세기대 토기류



편병은 1면 편병, 4면 편병 등이 확인되고 있다. 1면 편병은 동체의 한쪽 면을 전체적으로 눌러 편평하게 하여 단면형태가 반구형인 것들이 많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에 침선이 돌아가며, 구연부는 매우 좁게 형성되었다. 4면 편병은 기벽을 4등분하여 사각형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동체부의 단면형태가 사각이나 말각방형을 이루는데, 말각방형이 많다. 바닥은 평저이고, 기신은 수직으로 올라 견부에서 크게 꺾여 짧은 경부를 형성한 후 외반하는 구연부로 연결된다. 구연부는 외반하거나 직립하고 있다. 외면 문양은 모두 무문이고, 동체부에 침선을 돌린 것도 있다.⁷⁾

2) 기와류

기와류는 명문와와 막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 4> 마로산성 출토 명문 수기와 현황

번호	명문내용	크기(cm)			문 양	내 면	분할 방법
		길이	너비	두께			
1	馬老官	24.4	19.4	2.1	무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2	馬老官	34.7	19	3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3
3	馬老官	33.0	15.0	2.5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4	馬老官	33.2	16.5	1.5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5	馬老官	34.0	13.5	1.5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6	馬老官	28.3	16.6	2.0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7	馬老官	34	13.0	1.2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8	馬老官	29.0	17.0	1.5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9	馬老官	25.6	12.5	2.3	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2/3
10	馬老官	23.6	17.7	2.5	선문+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7) 최권호, 앞의 논문, 2010, 78쪽.

번호	명문내용	크기(cm)			문 양	내 면	분할 방법
		길이	너비	두께			
11	馬老官	23.6	17.5	2.0	종선문	포흔	내→외, 외→내1/2
12	馬老官	32.8	15.9	2.5	횡선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3	馬	33.8	168	2.8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4	官年末	36.2	14	1.7	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5	官年末	24	14.2	1.5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1/2
16	年末	34	13.5	2.3	사격자문+종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7	年末	26.7	14.3	1.2	선문+X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8	年末天	34.1	14.5	2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9	官	36.6	14.1	1.7	선문	포흔+사도흔	내→외1/2
20	官	38.2	19.3	1.9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21	甲全官	28.4	18	2.2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2/3
22	全官/甲	29.6	17.5	1.6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23	□全官	26.6	15.7	2.4	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24	□天	33.8	16.3	1.8	종선문	포흔	내→외, 외→내1/2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의 종류는 ‘馬老官, 官年末, 官末, 年末, ○天, 甲全官, 官’ 銘 등이다. 명문과 결합되는 문양은 수량이 가장 많은 ‘마로관’명 기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격자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종·횡선문의 선문계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양의 타날은 대체로 중판 이상의 타날판을 사용하였고, 타날 깊이가 비교적 얇다. 분할면은 수키와⁸⁾를 기준으로 볼 때 내면에서 자른 후 부러뜨린 것과 한 측면은 내면에서, 다른 측면은 외면에서 자른 후 부러뜨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기법은 2점

8) 암키와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안쪽에서 와도를 그어 분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와도 관찰을 통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최맹식, 『백제 평기와 신연구』, 학연문화사, 1999, 57-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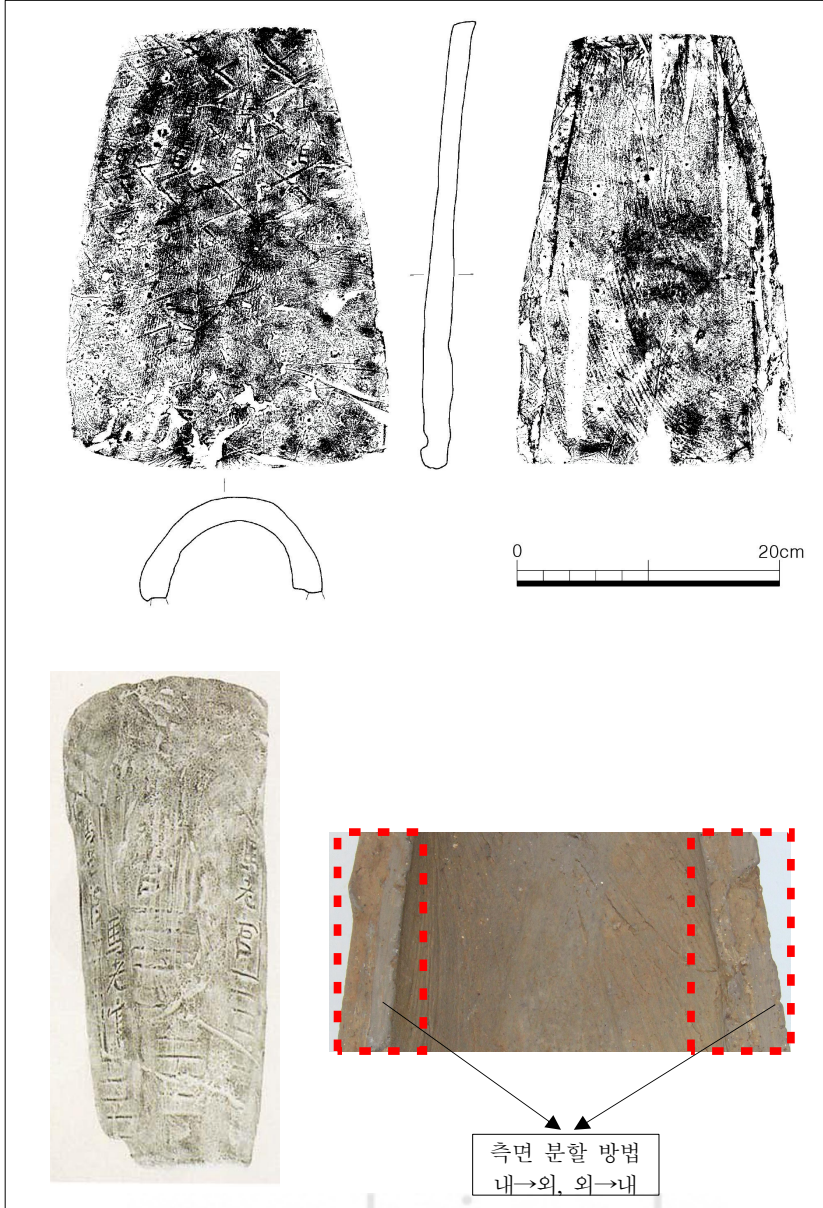
에서만 확인되고 나머지 22점은 모두 후자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마로관’명이 시문된 기와는 모두 후자의 기법만 확인된다<그림 8>. 이렇게 와도질 방향이 한쪽은 내측, 다른 한쪽은 외측인 것은 9세기~10세기 전엽까지만 사용된 기법으로 이해되어 왔다.⁹⁾ 하지만 이런 견해에 대해 경주 황성동 석실분(7세기) 및 황오동 326-1번지 유적(7세기~9세기)에서 출토된 중판 타날판 수키와에서도 확인되므로 다른 속성과의 비교 검토 없이 와도질 방향만으로 제작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¹⁰⁾이 있으므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들은 문양, 타날방식, 분할기법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기법들이 관찰되고, 동반유물의 중심연대가 9세기대로 편년되고 있어 이러한 기와 제작기법의 사용시기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는 9세기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최맹식, 앞의 책, 1999, 60쪽.

10)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3-95쪽.

<그림 8> 마로산성 출토 '馬老官'명 수키와



막새<그림 9>는 수막새만 확인되며 문양은 대부분 새로운 것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시 전국에서 유행했던 것들과의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막새의 문양은 총 30여종이 확인되었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연화문, 파문, 원문, 능형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연화문이 28종으로 가장 많은 종류를 보이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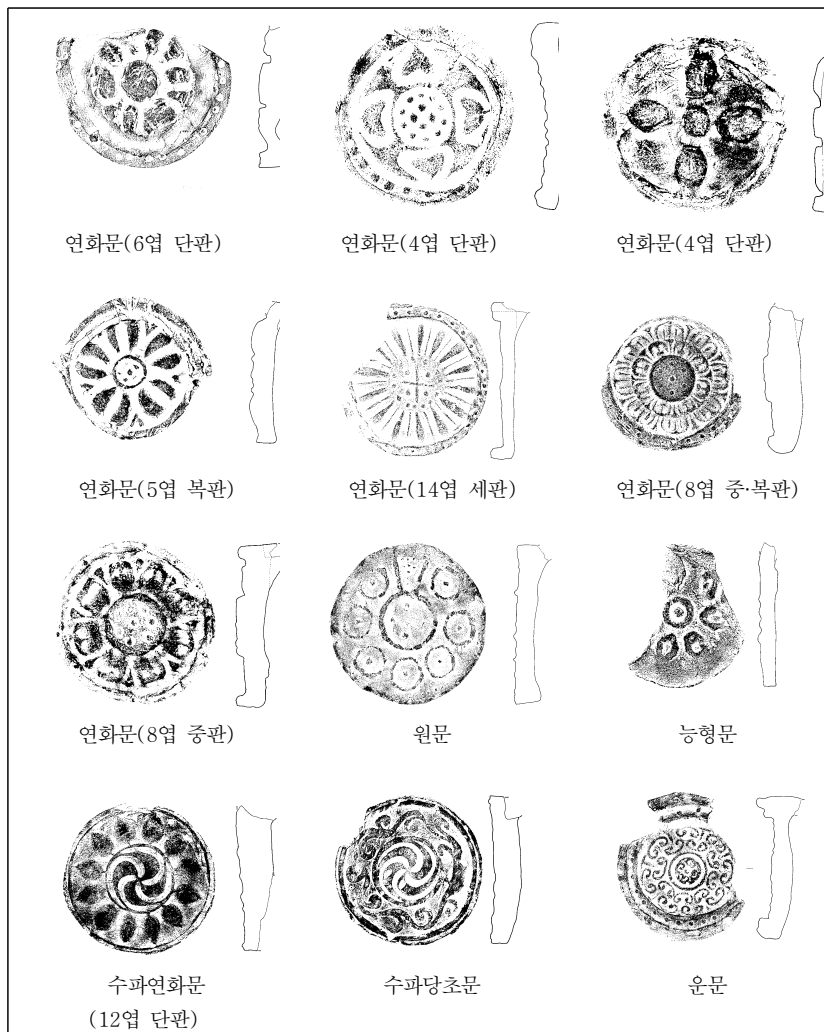
연화문은 단판, 중판, 복판, 세판 양식이 모두 확인된다. 연잎의 수는 4·5·6·7·8·10·11·12·14엽으로 다양하다.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복엽형의 중판 연화문과 유사한 양식은 2~3종 정도 확인되고 있다. 원문과 능형문은 백제 한성기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와당면을 ‘十’자형으로 4구획하고, 주연이 돌출되는 특징이 있다. 마로산성 출토품은 와당면 구획이 없고 주연부를 만들지 않아 차이가 있다. 파문은 사비기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마로산성 출토 파문 막새는 파문+당초문, 파문+연화문이 조합된 형식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는 신형식이다. 주연부는 1조의 원권을 돌려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연부 처리 방식은 통일신라시대 후엽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마로산성 출토 막새는 독특한 문양조합, 거칠고 조잡한 제작기법 등에서 동시기 타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앙의 통제를 받아 조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동반된 유물로 볼 때 제작 시기는 9세기대로 판단된다. 최근 조사된 임실 월평리 산성에서도 독특한 문양의 막새가 출토되었는데, 조사단은 이 막새의 제작 시기를 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11) 최인선, 「광양 마로산성 출토 막새기와의 대한 고찰」, 『문화사학』 33, 2010, 한국문화사학회.

12) 최권호, 「광양 마로산성 출토 ‘馬老官’銘 기와의 대한 일고찰」, 『백제와 주변세계』, 2012, 진인진.

<그림 9> 마로산성 출토 수막새(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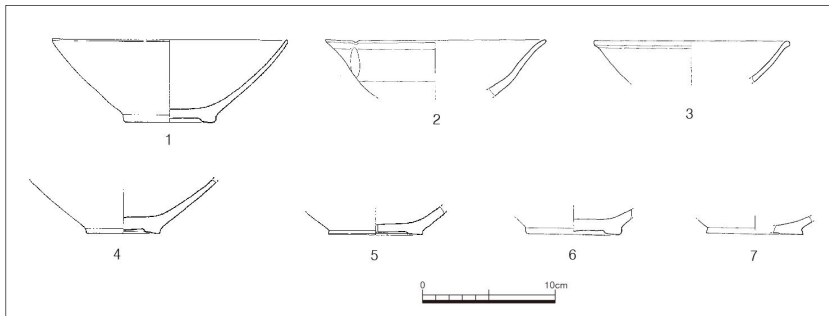


3) 자기류 및 금속류

가) 자기류<그림 10>

자기류는 주로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 수혈에서도 확인되었다. 마로산성 출토품은 모두 중국제품¹³⁾으로 크게 청자와 백자 계열로 나눌 수 있고, 황유녹갈채(黃釉綠褐彩)자기편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10> 마로산성 출토 중국제 자기류(1·6·7 : I-2건물지, 2~5·8 : II-1건물지)



청자 해무리굽완편들은 월요주요(越州窯) 계통인데, 내저곡면식(內底曲面式)이면서 굽바닥에 내화토 받침을 받쳐 구웠다. 백자 해무리굽완편은窯 계통으로 내저곡면식에 구연부는 도톰한 옥련(玉緣)형 구연을 지니고 있다. 굽바닥에는 백색내화토 받침을 받쳐 구웠다. 황유녹갈채자기편은 장사요(長沙窯) 계통으로 주전자나 호의 저부편으로 추정되는데, 황유의 자기에 산화동과 산화철로 그린 오리, 새문양이 녹색, 갈색으로 시문되었다. 이러한 황유녹갈채자기는 기면에 접화 장식을 하거나 갈색이나 녹색의 산화철, 산화동 안료로 그린 것이 특징적이다.¹⁴⁾

13) 자기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內低圓刻의 有無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해온 것으로 내저원각이 없는 것은 중국산, 있는 것은 국산으로 분류하고 있다(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548쪽).

해무리굽의 청차는 굽의 직경과 너비가 편년에 중요한 속성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기가 늦어질수록 굽의 직경과 너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마로산성 출토품에서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출토된 개체수가 적고 완형굽이 거의 없어 세부적인 편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월주요산 청자완들은 해무리굽을 특징으로 하는 완들로 당대(唐代)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초엽에 걸치는 절강성 자계, 영파지역의 상림호 등지 요지에서 다완용으로 제작된 후 무역을 통해 받아들여져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⁵⁾. 국내에서는 익산 미륵사지, 경주 안압지, 완도 청해진 유적, 보령 성주사, 부여 부소산성, 남원 실상사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중심 연대를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전엽으로 보고 있다. 마로산성 출토품도 이와 유사한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동경 및 청동장식구<그림 11>

동경은 해수포도방경(海獸葡萄方鏡)과 ‘왕가조경(王家造鏡)’명 동경이 출토되었다.

해수포도방경<그림 8-1>은 9.1×9.1cm의 정사각형이고, 두께는 0.9cm이다. 문양은 크게 내구와 외구로 나뉘어져 있다. 외구에서 1.8cm 안쪽에 5.2×5.2cm의 방형의 내구를 형성하고 내구의 중앙에 머리를 숙인 짐승모양의 뉴를 배치하였다. 이 해수포도방경은 당나라에서 제작되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마로산성 출토품이 유일하다¹⁶⁾. 이러한 해수포도방경은 당나라 高宗~武

14) 윤용이, 「광양 마로산성 출토 자기의 검토」, 『한국성곽학회』 제10집, 2006, 한국성곽학회.

15) 이동희, 「전남지역의 후백제유적과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87, 2015, 한국상고사학회, 54쪽.

16) 최권호, 앞의 논문, 2012, 570쪽.

則天代(7C후반~8C전엽)에 유행한 鏡이고, 당시에 당경(唐鏡)을 주로 제작하였던 곳은 양주(揚州)로 알려져 있다.¹⁷⁾ 마로산성 출토품은 전술한 바와 같이 9세기대의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토되는 동경과는 약간의 시기차를 보인다.

‘왕가조경’명 동경은 칠보문¹⁸⁾경으로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지름 18.5cm로 중앙에 반원형으로 돌출된 소형의 뉴를 배치하고 뉴좌 및 내구, 외구의 구획이 전혀 없다. ‘왕가조경’명은 정면 우측에 치우쳐 종으로 양각되어 있다. 명문을 해석해보면 ‘왕씨 집안에서 만든 거울’이라는 뜻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正倉院에 소장된 먹 가운데 ‘新羅楊家上墨’·‘新羅武家上墨’이라는 명문을 가진 먹이 있다. 이 명문 역시 ‘신라의 양가(楊家)와 무가(武家)에서 만든 상등품 먹’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제작지를 표기한 유물의 존재는 당시 통일신라에서 ‘家’를 중심으로 먹이나 경을 제작·생산했음을 알려준다.¹⁹⁾

청동장식구는 V-2 수혈에서 일괄 출토되었는데 재갈, 철검, 자물쇠, 톱, 단야구, 철촉 등이 동반 출토되었다. 청동장식구는 말의 엉덩이나 가슴 등의 곡률부에 장착하는 행엽과 이들을 구성하는 핵대를 장식하는 금구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로산성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익산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그런데 미륵사지 출토품은 외면에 금동장식인 반면 마로산성 출토품은 청동장식 외면에 은박이 씌어져 차이가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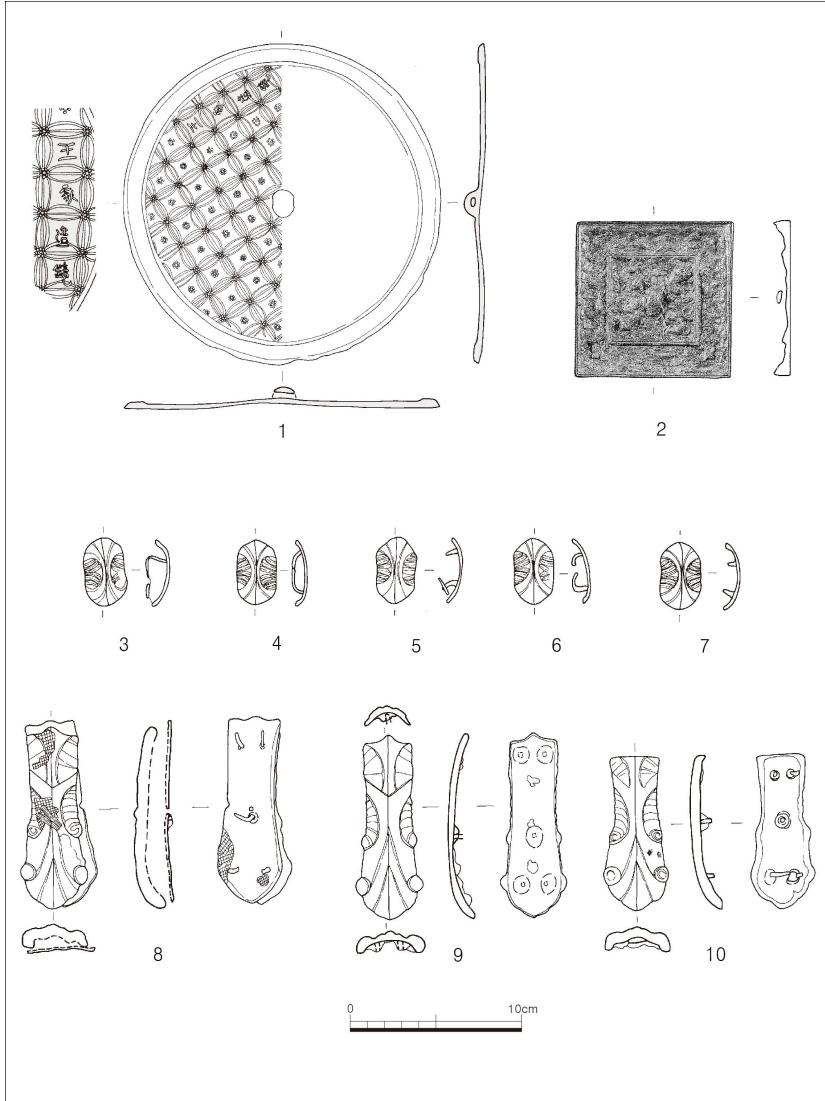
17) 孔祥星·劉一曼, 安京淑 譯, 『中國古代銅鏡』, 주류성, 2003, 343-349쪽.

18) 칠보문은 多福·多數·多男 등 도교적 이념에서 비롯된 三多사상에 의한 길상도안의 하나로 子孫吉慶·長命富貴등을 뜻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9) 이도학, 「新羅末 甄萱의 勢力 形成과 交易 張保臯 이후 50년」, 『신라문화』 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210쪽.

20) 최권호, 앞의 논문, 2012, 571쪽.

<그림 11> 마로산성 출토 청동거울 및 청동장식구
(1-2: I-2건물지 및 주변 / 3~10 : V-2호 수혈)



이러한 장식구는 10세기 중엽을 거치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주요 식물에서 동물 및 길상형태로 문양이 전환되고 있는데, 마로산성의 장식구류는 아직 동물 문양을 띠고 있지 않아 그 제작 시기를 다른 마구와 같이 10세기 중엽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미루어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마구들은 적어도 통일신라 후반에 폐기되었던 마구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²¹⁾

다. 소결

지금까지 마로산성에서 확인된 9세기대 유구와 유물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마로산성은 6세기 백제에 의해 초축되어 삼국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다가 9세기대에 이르러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 건물지는 내부의 평탄지, 정상부, 경사면 등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초축 시기가 동일하면서 삼국 통일기 이후 폐성되는 김단산성이나 고락산성의 내부 구조와 비교하면 이시기 마로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수시설은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축조기법을 도입하여 가장 큰 규모로 축조하였는데, 외곽에 토사의 유입과 배수를 용이하게 하는 시설이 등장하고 있어 집수정 축조에 상당한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치는 산성에 오르기 가장 쉬운 북벽과 동문지 주변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성벽에 덧대어 축조하는데, 최하단에 대형의 장방형 지대석을 놓고 2단부터 잘 다듬어진 석재를 들여쌓기 하였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통일신라시대 산성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법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장산도 대성산성,

21) 성정용·권도화·諫早直人, 「고락산성과 마로산성 출토 마구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27, 2007, 호남고고학회, 95-97쪽.

무안 봉대산성, 전주 동고산성, 정읍 고사부리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9세기대 마로산성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군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산성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산성 내부 곳곳에 건물지를 축조하고 전단계와 비교되는 대형 집수시설을 정교하게 만든 것은 상주 군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치의 축조이다. 치는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조기 관측하고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시설로 산성의 방어를 강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는 구조물이다. 그런데 9세기대는 삼국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던 삼국시대와는 달리 명확한 주적의 존재가 희미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성의 방어를 견고히 하는 치를 축조한 것은 지방 호족 세력이 독자성 확보를 위해 지역 거점인 마로산성을 장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내부에서 출토된 ‘마로관’명 기와, 독창적인 문양의 막새, 청동거울, 청동장식구, 중국제 자기 등 독특하고 다양한 유물의 조합은 동시기 타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건물지, 집수 시설, 치의 축조에서 보는 것과 같이 9세기대 마로산성 운영 세력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마로관’명 기와를 들 수 있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로관’명의 ‘마로’는 광양의 백제때 지명으로 백제에 의해 운영된 6~7세기대와 관련이 있지만 기와의 제작기법, 문양, 동반된 유물로 볼 때 9세기대에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마로산성이 9세기대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이유는 ‘마로관’명 기와가 등장한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로관’명 기와처럼 ‘古지명+官’명 이 시문된 기와가 여러 산성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 마로산성을 통해 본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

가. ‘古지명’기와가 출토된 주요 산성유적

‘古지명’이나 ‘古지명+官’銘이 시문된 기와는 현재까지 산성, 寺址, 생활유적 등 다양한 유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서 출토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산성인데, 그 출토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인되며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古지명’이나 ‘古지명+관’명이 시문된 기와가 출토된 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하겠다.²²⁾

1) 홍성 석성산성²³⁾

홍성 석성산성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산 28-1번지 일대에 위치한 석축산성이다. 발굴조사는 2차례 이루어졌고, 내부에서 건물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명문와는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사시랑(沙尸良)’, ‘사라와초(沙羅瓦草)’, ‘공사랑관(工沙良官)’등의 3종이 확인되었고, 분할기법은 한측면은 내측에서 다른 측면은 외측에서 자른 후 부러뜨린 기법이 사용되었다. 석성산성의 보고지는 건물지의 축조 시기를 토기로 볼 때 9세기 무렵으로 보았으나 ‘사라와초’명 기와에 시문된 서체가 북위풍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기와의 제작시기를 백제 말기로 보고 있다.

22) 이 절과 관련된 그림은 <그림 12>인데, 보고서에 완형급 명문기와가 수록되지 않았거나, 실측도면이 누락되어 있어 수키와의 중요 속성인 와도질 방향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물 설명과 사진을 참조하여 선별·기술하였다.

23) 상명대학교박물관, 1998, 『홍성 석성산성-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표 5> 홍성 석성산성 출토 '沙尸良'銘 기와 속성

번호	명문	크기(cm)	특징	비고
1	沙尸良	길이:34 두께:2.2	외면에 '사시량'명이 중서로 20×5cm 범위내에 양각으로 시문됨. 내면에는 포목흔. 분할면은 내-외, 외-내 방향으로 1/3정도 자른 후 부러뜨림.	그림 12

<그림 12> 홍성 석성산성 출토 명문와



하지만 같은 건물지에서 호형토기나 삼족기 같은 특징적인 백제 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점과 명문와의 타날판 길이, 하단내면 조정 방법 등으로 볼 때 명문와의 제작 시기는 9세기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⁴⁾ 홍성군은 백제시대에 결기군이었고 속현으로 신촌현과 사시량현이 편제되어 있었다. 사시량현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신량현으로 개명된다.

24) 이인숙, 앞의 논문, 2004, 68쪽.

2) 예산 봉수산성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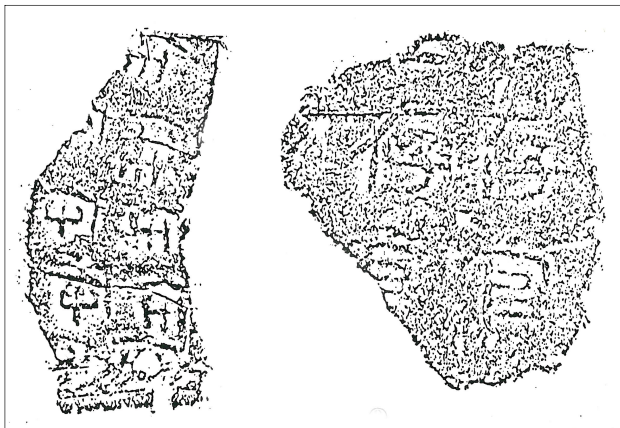
봉수산성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식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표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봉수산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주류성과 함께 활약했던 임존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기와의 명문은 ‘임존(任存)’, …존관(存官)’ 등인데 ‘임존관(任存官)’으로 보고 있다.

<표 6> 예산 봉수산성 출토 ‘任存’銘 기와 속성

번호	명 문	크기(cm)	특 징	비고
1	任存	길이:5.4 두께:1.5	외면에 ‘임존’명이 시문됨. 글자크기 2.5×2cm. 내면에 포흔. 한측면에 분할면 내-외 1/2자른 후 부러뜨림.	그림 13
2	…存官	길이:14.7 두께:1.8	외면에 ‘존관’명이 시문됨. 글자크기 4×4cm. 내면에 포흔. 한측면에 분할면 내-외 1/2자른 후 부러뜨림	그림 13

<그림 13> 예산 봉수산성 출토 명문와



25) 이남석, 「禮山 鳳首山城(任存城)의 現況과 特徵」, 『백제문화』 28, 1999,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충남개발연구원, 『예산 임존성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2000.

임존관은 봉수산성이 임존성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고 있는데, 명문이 새겨진 외편은 문양이나 제작기법으로 볼 때 삼국시대로 소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군 대흥면은 백제때 임존성으로 불리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임성군으로 개명되었다.

3) 서천 남산성²⁶⁾

서천 남산성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 남산리 산 22-1번지 일대의 남산 정상부에 테괴식으로 축조된 석성이다. 발굴조사는 문지와 성벽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성내부의 트렌치 조사를 통해 총 3개의 외적층이 조사되었는데, 명문와는 2와적층에서부터 3와적층에 걸쳐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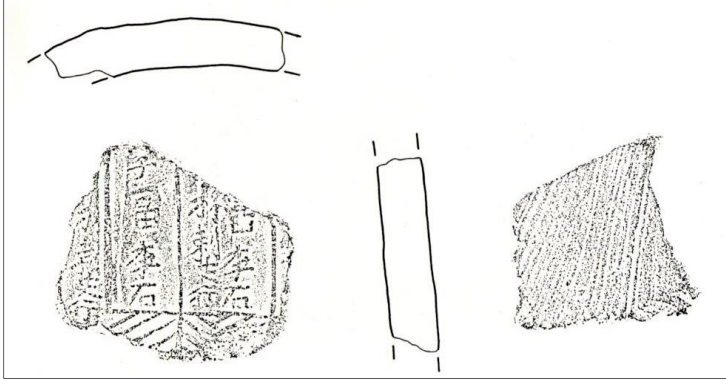
명문은 ‘서림군관와작(西林郡官瓦作)’, ‘서림군관와초(西林郡官瓦草)’, ‘○국사설림자사행(○國巳舌林刺史行)’ 등의 3종이 확인되었고, 분할기법은 한측면은 내측에서 다른 측면은 외측에서 자른 후 부러뜨린 기법이 사용되었다. 명문이 출토된 2와적층은 중심시기를 나말여초기로 보고 있는데, 서천읍의 통일신라시대 지명인 서림과 백제시대 지명인 설림이 같이 확인되고 있다. 서천읍은 백제시대에 설림군으로 있다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서림으로 개명되었다.

<표 7> 서천 남산성 출토 ‘國巳舌林刺史行’銘 기와 속성

번호	명 문	크기(cm)	특 정	비고
1	…國巳舌林刺史行	두께:2.5	중방향의 괄 내부에 ‘…국사설림자사행’명이 시문됨. 내면 포흔.	그림 14

26) 류기정 외, 『서천 남산성 -서문지 1·2차 발굴조사』, 200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그림 14> 서천 남산성 출토 명문와



4) 인천 계양산성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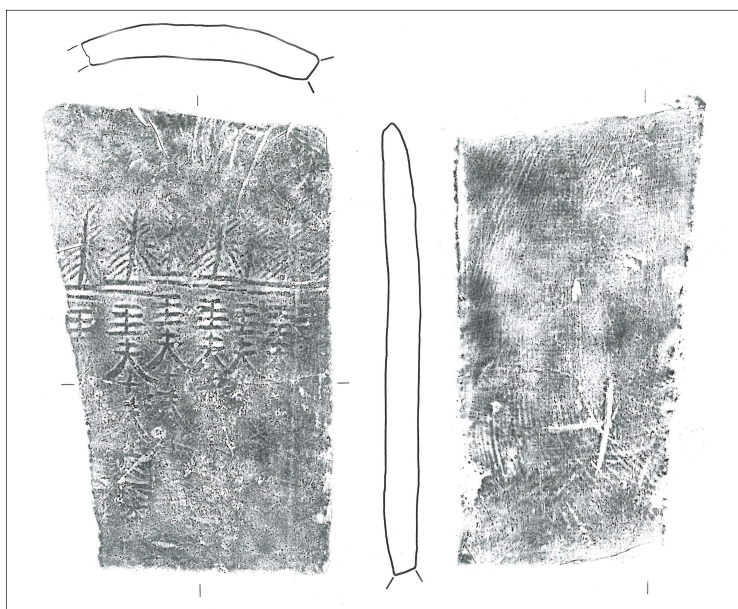
계양산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성벽과 집수정이 조사되었다. 명문와는 동벽과 집수정 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명문은 ‘주부십(主夫十)’명이 확인되었다. 계양은 삼국시대에 ‘주부토군(主夫吐郡)’이었는데 보고자는 ‘주부십’이 ‘주부토’일 것으로 보고 있다. 명문이 출토된 유구는 대체로 삼국시대로 보고 있으나 집수정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줄무늬병이나 명문와에 타날된 문양이 수지문임을 감안하면 산성의 하한이 9세기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계양은 고구려와 백제때 주부토군이었고, 통일신라 경덕왕대에 장제군으로 개명되었다.

27) 이정구, 『계양산성』, 2008,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표 8> 인천 계양산성 출토 '主夫十夫○大'銘 기와 속성

번호	명문	크기(cm)	특징	비고
1	主夫十夫○大	길이:36.1 두께:2.7	외면상단부 수지문타날. '주부십부○대'명이 시문됨. 내면 사철흔과 포흔, 분할면은 내-외 절단 후 부러뜨림	그림 15

<그림 15> 인천 계양산성 출토 명문와



5) 서울 호암산성²⁸⁾

호암산성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83-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두 차례 이루어졌고, 한우물과 제2우물지, 건물지

28) 임효재·최종택, 『한우물-호암산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1990, 서울대학교박물관.

등이 확인되었다. 명문와는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종류는 ‘잉대내(仍大內)’, ‘잉대내관(仍大內官)’, ‘春○’, ‘支○’ 등이다. ‘잉대내’명은 고구려때 금천의 지명인 ‘잉벌노(仍伐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9> 서울 호암산성 출토 ‘仍大內’銘 기와 속성

번호	명 문	크기(cm)	특 징	비고
1	仍大內	알수없음	외면상단부 수지문타날. ‘주부십부○대’명이 시문됨. 내면 사절흔과 포흔. 분할면은 내-외 절단 후 부러뜨림	그림 16

<그림 16> 서울 호암산성 출토 명문와



명문이 출토된 건물지의 시기에 대하여 보고자는 잉벌노현이 8세기 중엽에 곡양현으로 개명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한을 8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으나 동반 출토된 기와에서 나타나는 어골문과 수

지문 볼 때 하한이 9세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천은 고구려때 잉벌노현으로 있다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곡양현으로 개명되었다.

나.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과 마로산성

‘官’자명 기와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관청 건물이나, 관영의 창고, 관에서 제작한 관급와(官給瓦), 대관사(大官寺) 같은 사찰의 이름, 해당 지역의 지방 이름과 ‘관’자가 결합된 것, 지방호족의 거관(居館)을 표시한 것 등으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다.²⁹⁾ 앞 절에서 검토한 각 지역 산성에서 출토된 ‘古지명+官’명 기와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 기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기와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9세기~10세기 전엽이다. 둘째, 기와의 출토 범위는 호남, 충남, 서울 경기 지역 등 삼국 통일 이전 고구려와 백제 지역이다. 셋째, 기와에 시문된 지명은 통일신라 경덕왕대 지명이 개칭되기 이전의 고후(古號)이며, 출토된 산성들은 대체로 그 지역의 치소로 비정되고 있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마로관’명 기와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기와의 제작 주체나 등장 배경이 유사함을 짐작케 한다.

‘古지명+관’명 기와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하게 보면 각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행정적 지명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의 전통적 문화를 잇고,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옛 지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9) 차순철, 「官’子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경주문화연구』5, 2002,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128-129쪽.

김창호, 「신라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강좌미술사』 15, 2000, 한국불교미술사학회.

_____, 「後三國時代의 기와에 나타난 麗·濟의 지명」,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 2001, 韓國中世史學會.

이들 기와의 제작 시기가 9세기대인 점을 감안하면 개명 시점 직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개명된 이후의 지명이 시문된 동시기의 기와는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홍성 석성산성, 서천 남산성, 서울 호암산성, 예산 봉수산성, 인천 계양산성 이외에도 대전 계족산성 2 건물지에서는 ‘우술(雨述)’명(백제→우술)기와, 파주 오두산성에서 ‘천(泉)’명(고구려→泉井口縣), 익산 저토성에서 ‘금마저성(金馬渚城)’(백제→금마저)기와, 나주 자미산성에서 ‘반내부(半乃夫)’(백제→반나부리) 기와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산성유적은 아니지만 군산 임피군에서 조사된 금강(Ⅱ)지구 옥구2-1공구內 안흥(Ⅱ)유적 건물지에서 ‘시산관초(屎山官草)’명(백제→시산현)기와 등이 출토된 예가 있다.

이들 명문와에 시문된 지명은 각 지역의 고구려와 백제시대 지명에 해당되지만 기와의 출토층위, 동반유물 등은 대부분 9~10세기 전엽에 해당되고 있어 지명의 사용시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명문와들이 어떠한 이유로 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기와의 절단면이 통일신라시대 후반에 한시적으로 사용된 한 측면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다른 측면은 외측에서 내측으로 자른 기법이 사용되고, 동반된 유물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 시기의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9~10세기 전엽에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토지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단순히 관습적인 면에서 옛 지명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토착 세력이나 지방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세우려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 되었을 것이다.

30) 필자가 확인한 유적 중에서는 서천 남산성에서 유일하게 백제(설립)와 통일신라(서립) 개칭된 지명 명문이 확인되었다.

즉, 통일신라 말기 각 지역에서 활동한 지방호족이 대규모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을 행한 주체를 밝힘과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타 지역과의 차별의식을 심기 위해 그 지역의 지명을 기와에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³¹⁾ 이 가능성은 마로산성에서 보이는 9세기대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로산성은 다섯 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산성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9세기대 산성의 개편에 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9세기대 마로산성의 운영 세력은 다수의 건물지 및 대형 집수시설을 축조하였고, 전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방어 수단인 치를 축조하여 산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적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9세기대에 지방의 산성을 보다 견고히 재정비하였다는 것은 그 주체가 중앙 정부가 아닌 이 지역의 독자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마로관’명 기와는 이 과정에서 마로산성을 점유하고 있던 세력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양상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 말기는 8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골품 귀족의 정권 쟁탈로 왕권이 약화되고, 왕위 쟁탈에서 밀려난 귀족세력은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822년에 일어난 ‘김헌창의 난’을 들 수 있다. 관련된 사료를 살펴보자

3월, 熊川州 都督 金憲昌은 그의 父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역하여 國號를 長安이라 하고, 年號를 慶雲 元年이라 하고, 武珍(광주)·完山(전주)·菁州(진주)·沙伐(상주)의 四州 都督과 國原京(충주)·西原京(청주)·

31) 차순철, 앞의 논문, 2002, 127쪽.

金官京(김해)의 仕臣과 여러 郡縣의 守丞을 협박하여 자기의 소속으로 삼을 때, 菁州 都督 向榮은 몸을 빼어, 推火郡(밀양)으로 달아났다.(『三國史記』 10 憲德王 14년)

이 기록은 단편적이긴 하나 여러 측면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케 한다. 원문의 내용에는 김헌창이 광주, 전주, 진주, 상주, 충주, 청주, 김해 등의 여러 사신과 수령을 위협하여 자신에게 협력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김헌창에게 협력한 곳을 보면 남한 중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넓은 지역의 모든 수령들이 김헌창의 협박에 못 이겨 반란에 동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³²⁾

반란에 동조한 수령 들은 이미 지방 호족화 되어 각지에서 세력을 확대하며 기회를 엿보다 김헌창이 주도하여 난을 일으키자 거기에 동조하여 반란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반란에 참여한 지역의 범위가 중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점으로 볼 때 9세기 전엽에는 중앙 정부의 지방 지배력이 매우 약화 되었고, 지방 호족 세력들의 영역 확장이 가속화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로산성을 점유하고 있던 세력도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갔을 것이고, 그 근거지 중의 하나로 마로산성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헌창의 난 이후 지방 세력의 할거적 경향이 크게 촉진되었다는 점³³⁾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막새와 동경, 청동장식구 등은 산성의 점유 세력이 지방 호족 세력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막새는 동시기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는 막새

32) 김상돈, 「新羅末·高麗初 政治秩序의 再編研究」, 2007,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30-31쪽.

33)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1984, 일조각, 154쪽.

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는 당시 유행했던 요소를 간직하고 있으나 문양의 조합이나 제작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특히 파문과 당초문의 조합상, 백제 한성기 이후 출토된 적이 없는 원문과 능형문이 확인되는 점은 이러한 막새의 제작 집단이 중앙이 아닌 이 지역의 토착세력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대 기와의 경우 국가적 조영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대체로 정형화된 양식을 보이는 데³⁴⁾, 마로산성 출토 막새들은 정형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성의 운영 세력이 독자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청동장식구는 익산 미륵사지와 경주 황룡사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데, 기존의 출토지에서는 소수로 확인된 반면 마로산성에서는 4 유형의 37점이 출토되어 조합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마로산성 출토품이 교역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기존의 출토유적이거나 그 수량이 소수에 불과한 반면 마로산성에서는 다량으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교역을 통한 일괄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수포도방경과 자기류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이 분명하고, '왕가조경'명 동경 역시 해외로 수출되던 품목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시 이 지역에 당과 왜와의 교역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교역품들이 마로산성에서 출토되는 것은 마로산성의 운영집단이 교역의 주체세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이나 청동장식구 같은 품목들이 당시 중앙인 경주는 물론 타지역에서 출토되지 않은 점은 이러한 대외교역의 주체가 중앙인 경주가 아니라 이 지역의 호족세력임을 알 수 있게 한다.³⁵⁾

이상으로 볼 때 9세기대 마로산성 점유 세력의 지역 거점성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34) 백중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2006, 주류성, 17쪽.

35) 최권호, 앞의 논문, 2012, 575쪽.

9세기대 마로산성 운영 세력은 중앙귀족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지방 지배의 약화를 틈타 세력을 확장하였고 건물지, 집수시설 등을 축조하여 산성을 재편하였고, 성벽 방어시설인 치 조성을 통해 방어를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당이나 왜와의 대외 교역을 주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속과 부를 위한 영역 확대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 확장에는 반드시 명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지방호족세력들이 세력을 결합하는 방법과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나 후백제, 후고구려의 국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을 거론할 수 있다.³⁶⁾ 9세기대 마로산성 운영 세력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였고, ‘마로관’명 기와는 그 결과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마로관’명 기와는 당시 지역 거점성인 마로산성 운용했던 세력이 명분 확보와 자신들의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국제의식(國系意識)³⁷⁾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9세기대 전국적인 범위에서 ‘고지명+관’명 기와가 등장하는 배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36) 김상돈, 앞의 논문, 2007, 27쪽.

37)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의식(國系意識)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후 백제와 고구려인들에게 강렬하게 나타난 歸巢的自國民意識을 말하는 것이다.(국제의식에 대한 개념은 최근영(「高麗建國理念의 國系的性格」, 2007, 『한국사론』 1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1쪽.)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4. 맺음말

9세기대는 통일신라 말기로 중앙 귀족의 권력 쟁탈에 따른 왕권 약화로 인해 지방에 대한 지배구조가 약화된 시기였다. 지방 호족들은 이를 틈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궁예, 왕건, 견훤 등의 맹주가 등장하여 후삼국이 형성된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9세기대 마로산성에서 확인되는 유구와 유물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마로산성 운영 세력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먼저 9세기대에 축조된 건물지, 집수시설, 치 등의 유구 검토를 통해 내부에 상주하는 군인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산성에 오르기 가장 유리한 북쪽과 동문지 주변에 치를 축조한 것은 방어적 측면을 강화한 것으로 보았다.

유물은 ‘마로관’명 기와, 막새, 청동제품, 중국제 자기류 등을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 ‘마로관’명 기와는 광양의 백제때 지명인 ‘마로’가 시문되어 있어 주목하였다. ‘마로관’명 기와는 검토 결과 제작 시기가 9세기대 임이 분명해졌고, 타 지역 산성에서 출토된 유사한 명문와에 대한 검토를 통해 9~10세기 전엽에 이러한 기와가 고구려와 백제의 고토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9세기대에 제작되는 이런 명문와들은 중앙 귀족의 정권 쟁탈에 따른 지방지배의 약화로 당시 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족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막새는 독특한 문양이 시문되어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상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전북지역의 산성들에서도 독특한 문양의 막새들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보다 자세한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거울, 청동장식구, 중국제 자기류 등은 국제 교역의 증거물이다. 특히 해수포도방경과 자기류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이 분명하고, ‘왕가조경’명 동경 역시 해외로 수출되던 품목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시 이 지역에 당과 왜와의 교역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교역품들이 마로산성에서 출토되는 것은 마로산성의 운영집단이 교역의 주체세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이나 청동장식구 같은 품목들이 당시 중앙인 경주는 물론 타지역에서 출토되지 않은 점은 이러한 대외교역의 주체가 중앙인 경주가 아니라 이 지역의 호족세력임을 알 수 있게 한다.

9세기대 마로산성은 지역 거점으로서 지방 호족세력이 중앙 정부의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었고, 그들의 국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마로관’명 기와를 제작하였다. 마로산성을 점유하고 있던 세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9세기 말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의 사위로 알려진 박영규가 인근지역인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점으로 보면 박영규 세력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孔祥星·劉一曼, 安京淑 譯, 『中國古代銅鏡』, 2003, 주류성.

<http://uci.or.kr//G701:B-00092853793@N2M>

奈良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2002, 『含水居藏鏡図録』, (有)関西プロセス.

백종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2006, 주류성.

<http://uci.or.kr//G701:B-00091429302@N2M>

최맹식, 『백제 평기와 신연구』, 1999, 학연문화사.

<http://uci.or.kr//G901:A-0008444186@N2M>

최맹식,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2005, 주류성.

<http://uci.or.kr//G701:B-00091448085@N2M>

2. 연구논문

강진주,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2006,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uci.or.kr//G901:A-0005300421@N2M>

김상돈, 『新羅末·高麗初 政治秩序의 再編研究』, 2007,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http://uci.or.kr//G701:B-00099026202@N2M>

김창호, 「신라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강좌미술사』 15, 2000.

<http://uci.or.kr//G901:A-0001889853@N2M>

_____, 「後三國時代の 기와에 나타난 麗·濟의 지명」,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 2001.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석벽건물(石壁建物)의 성격에 대한 시고」, 『백제문화』 42, 2010.

<http://uci.or.kr//I410-ECN-0102-2012-910-000865189@N2M>

성정용·권도희·諫早直人, 「고락산성과 마로산성 출토 마구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27, 2007.

<http://uci.or.kr//G704-000669.2007.27..005@N2M>

윤용이, 「광양 마로산성 출토 자기의 검토」, 『한국성곽학보』 제10집, 2006.

<http://uci.or.kr//G901:A-0002412648@N2M>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1984.

<http://uci.or.kr//G901:A-0000444203@N2M>

이남석, 「禮山 鳳首山城(任存城)의 現況과 特徵」, 『백제문화』 28, 1999.

<http://uci.or.kr//G701:A-00053876744@N2M>

이도학, 「新羅末 甄萱의 勢力 形成과 交易 張保臯 이후 50년」, 『신라문화』 28, 2006.

<http://uci.or.kr//G704-001251.2006..28.004@N2M>

이동희, 「전남지역의 후백제유적과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87, 2015.

<http://uci.or.kr//G704-000730.2015.87.87.004@N2M>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2004, 경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http://uci.or.kr//G901:A-0005184866@N2M>

이인숙·최태선, 「평기와 용어 검토」, 『한국고고학보』 80, 2011.

<http://uci.or.kr//G704-000699.2011..80.002@N2M>

차순철, 「'官'子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경주문화연구』5, 2002.

<http://uci.or.kr//G901:A-0001757555@N2M>

최권호, 「광양 마로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2010,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uci.or.kr//G901:A-0005518492@N2M>

최권호, 「광양 마로산성 출토 ‘馬老官’銘 기와에 대한 일고찰」, 『백제와 주변세계』, 2012.

<http://uci.or.kr//G901:A-0006415372@N2M>

최근영, “高麗建國理念의 國系的性格”, 『한국사론』 18, 2007

최인선, 「광양 마로산성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33, 2010.

<http://uci.or.kr//G704-000879.2010..33.003@N2M>

3. 발굴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함미산성 2차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 2016.

군산대학교박물관, 「임실 월평리산성 시굴조사 약보고서」, 20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 1996.

김시환 외, 『昌寧 火旺山城內 蓮池』,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김중문 외, 『정읍 고부 舊읍성』 I, 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김창억·이인숙, 「경주 황오동 326-1번지 건물지 유적」, 『박물관연보』, 창간호, 경북대학교박물관, 2004.

류기정 외, 『서천 남산성 -서문지 1·2차 발굴조사』,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문화재관리국,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4.

부여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 1995.

상명대학교박물관, 『홍성 석성산성-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1998.

서영일 외, 『과주오두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

심봉근, 『河東姑蘇城址試掘調査報告書』, 동아대학교박물관, 2000.

이강승·이희준, 『경주 황성동 석실분』, 국립경주박물관, 199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靈岩 鳩林里 土器窯址發掘調査 -1次發掘調査 中間報告-』, 1988.

- 이정구, 『계양산성』,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8.
- 임효재·최종택, 『한우물-호암산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 전북문화재연구원, 「금강(Ⅱ)지구 옥구 2-1공구내 발굴조사약보고」, 2008.
-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동고산성』, 2009.
-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동고산성』, 2011.
- 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종합보고서(1~5차발굴조사)』, 2013.
- 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남서성벽』, 2016.
- 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미륵산성』, 2017.
- 최인선 외, 『광양 마로산성』Ⅰ,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
- _____, 『광양 마로산성』Ⅱ, 순천대학교박물관, 2009.
- _____, 『광양 마로산성』Ⅲ, 순천대학교박물관, 2011.
- _____, 『광양 마로산성』Ⅳ, 순천대학교박물관, 2012.
- _____, 『광양 마로산성』Ⅴ, 순천대학교박물관, 2012.
- 충남개발연구원, 『예산 임존성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2000.
- 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 충남대학교박물관, 「대전계족산성발굴조사약보고」, 1998.

(Abstract)

The Operation of Regional Strongholds in the 9th Century during the Three Kingdom Period of Korean Peninsular - A Case of Maro Mountain Fortress located in Gwangyang -

Choi, Kwon-ho

Maro Mountain Fortress (Maro Sanseong, 馬老山城), a stone-stacked mountain stronghold built in the Baekje period, has revealed its full appearance through five excavation surveys so far. These surveys have identified artifacts and features from the 9th century, among which the “Marogwan” (馬老官, the office of Maro) roof tiles engraved with “Maro” 馬老, the old name of Gwangyang during the Baekje period, received the attention. The “Marogwan” tiles are intriguing in that their estimated production period (the 9th century) and the period when the place name “Maro” was used are different. Moreover, uniquely patterned eave-edge tiles, Chinese bronze mirrors, porcelains, bronze ornaments, and a bronze mirror engraved with “Wanga Jogyeong” (王家造鏡, a mirror made in the Wang family) were excavated from the 9th-century ruins of building and water collection facilities. The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artifacts, which has never been found in any other excavation case, reveals the unique character of the forces that operated Maro Mountain Fortress. The 9th century witnessed the expansion of the territories of powerful local warlords as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over the provinces weakened due to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central nobility. Given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e excavation of the tiles inscribed with ancient place names, such as “Maro”, in the strategic fortresses of Goguryeo and Baekje’s old territories strongl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producers of the tiles were powerful local warlords.

In conclusion, the forces behind Maro Mountain Fortress in the 9th century

were independent powerful local families. The “Marogwan” engraved roof tiles, as a concrete expression of their awareness of the national lineage, were produced to secure legitimacy and dominance over the territory in terms of the strategic aspect of operating the regional strongholds.

Keywords : Gwangyang, Maro Mountain Fortress (Maro sanseong),
“Marogwan” engraved roof tiles, regional stronghold,
awareness of the national lineage